

## The Multi-Parallel Triple Mediation Effect of Self-Determination, Self-Efficacy, Self-Future Reli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of Adolescents

Kim, Soyoung<sup>1)</sup>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Professor)

---

< ABSTRACT >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ulti-parallel triple mediation effect of self-determination, self-efficacy, self-future reli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relationship, leadership, collaboration) of Adolescents. This study used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s 'A study on measurement of Korean Youth Competency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in 2017 (middle school, 960 of 9th-grade participants). Results obtained from the analyses were as follows. First, leadership was lower than relationship and cooperation. Second,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parental attitude was more related to self-determination, self-efficacy, and self-future reliance than relationship, leadership, and cooperation. Self-efficacy was most related to relationship (.376), leadership (.462), and collaboration (.408). Third, self-determination, self-efficacy, and self-future reliance completely triple-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interpersonal competency (relationship, leadership, cooperation). When the three mediating variables were simultaneously input, the direct effect of parental attitude on relationship, leadership, and cooperation was reduced, which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parental attitude, self-efficacy, self-future reliance

---

---

1) Corresponding Author: Kim, Soyoung, Professor,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1239 Yangjae-Daero, Songpa-Gu, Seoul, Korea, 05541 / E-mail: ksy041@hanmail.net

##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역량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의 병렬 삼중매개효과

김소영<sup>1)</sup>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 < 요약 >

---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2017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자료(중학교 3학년 학생, 960명)를 활용하여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이 미치는 병렬 삼중매개효과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십이 관계형성이나 협동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부모양육태도는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과 관계보다는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과 관계가 더 높았다. 자기효능감은 관계형성(.376), 리더십(.462), 협동(.408)과 가장 관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은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관계를 완전 삼중매개하였다.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의 관계에서 세 매개변인이 동시에 투입될 경우 부모양육태도가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은 현저히 감소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역량은 부모양육태도 보다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부모양육태도,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

---

---

1) 교신저자: 김소영, 교수, (05541)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 E-mail: ksy041@hanmail.net  
논문투고: 2021. 11. 15 / 심사일자: 2021. 11. 18 / 게재확정일자: 2021. 11. 27

## I. 서론

청소년기에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람과 교류를 통해 자신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사회적 기능과 태도를 습득하며, 타인의 지지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 더 잘 대응하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Seo, 2020). 청소년기에 교사나 또래 등과 긍정적 상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우며, 사회적 위축, 외로움, 고립, 대인 불안 등의 문제가 보이기도 한다(Ahn, 2017). 또한, 청소년기 타인과 관계는 성인기의 원만한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에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적절한 관계 형성으로 심리 사회적인 부적응 현상을 겪을 수 있다(Bae & Cheon, 2004; Park, 2012).

일반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을 대인관계라 할 수 있고 학자에 따라 정의가 다양하다. 넓은 의미에서 대인관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협동적 행동, 모든 상호작용, 갈등관계를 의미하며, 가치함축적인 관점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조성되는 심리적인 조화를 의미한다(Choi, 2010). Sullivan(1953)은 대인관계란 인간발달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회복과 성장뿐만 아니라 질병과 퇴행까지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as cited in Seo, 2020). Lee(1998)는 대인관계를 사람 간에 일어나는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복합적인 패턴이며, 성숙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 공감적 이해,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Lee(2010)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내적인 욕구, 행동,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인관계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모는 최초의 인적 환경이자 평생을 함께하는 지속적이고 밀접한 관계이며 자녀의 성격과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eo, 2020). 부모 자녀 관계는 대인관계의 행동 모델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역할과 생활양식, 행동양식을 모방하고 소속감과 안정감을 바탕으로 대인관계를 확장해나간다(Park, 2018). 부모 자녀 관계는 부모 자녀 애착, 부모 자녀 의사소통, 부모양육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Yoo(2021)는 선행연구(Jo, 2011)를 바탕으로 부모양육태도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중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나 행동양식 등이 자녀에 의해 지각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자녀의 부모 행동양식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강조한 것으로 부모가 자신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도 자녀는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부모양육태도 구성요인

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Lee(1984)는 부모양육태도를 애정과 적의, 자율과 통제, 수용과 거부, 독립심과 의존심, 어머니의 외향적 특성과 내향적 특성, 독립심 조장과 의존심 조장,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 구성하였다. Huh(2004)는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임으로 구성하였다. Jo(2011)는 Arrindell & Engebretsen(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거부적 양육태도, 과보호적, 양육태도, 애정적 양육태도로 부모양육태도를 구성하였다. Yoo(2021)에 의하면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이나 행동을 증진시킨다. 반면, 거부적이거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에게 불안이나 자아개념의 혼란을 일으키며 폭력,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과 정신병적 행동, 우울과 불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2019; Lee & Lee, 2012; Park & Lim, 2017).

청소년기 대인관계의 근원은 부모와의 관계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Moon, 2007). 사람들의 상호작용은 3개의 대인적 요구들, 포함(소속의 욕구), 통제(통제와 권력), 애정(애정의 욕구) 측면을 지니며 이러한 욕구들은 아동기 동안에 어른들 특히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하게 된다(Schutz, 1958, as cited in Moon, 2007).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은 이러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 경험과 행동양식과 비슷하다고 하였다(Schutz, 1958, as cited in Moon, 2007). 부모의 양육태도가 허용적, 수용적인 가정의 자녀들은 활동성, 경쟁심, 사회성, 협동성, 긍정적 교우관계 등이 높아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 적대적, 엄격한 가정의 자녀들은 적대감, 공격성, 의존성, 부정적인 자기평가, 사회성 결핍, 사회적 위축, 내면적 갈등 등이 높아 대인관계에서 여러 문제들을 경험한다. Moon(2007)은 청소년의 대인관계는 부모의 양육태도, 특히 성취적 양육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부의 양육태도가 모의 양육태도에 비해 자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하였다. Lee(2014)는 부모양육태도를 더 온정적,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남녀 초등학생들이 더 높은 대인관계 능력을 보인다고 하였다.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 수준에 따라 중학교 1, 2학년 302명 학생을 3군집으로 구분하여 인지 영역, 정서적 영역, 사회적 영역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부모, 또래, 교사 관계가 가장 좋은 집단이 인지, 정서, 사회 영역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높았다. Oh et al.(2017)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부정적 양육태도는 대인관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 Jin(2019)에 의하면 부모의 돌봄적 양육태도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와 부적 상관관계를,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대인관계 문제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양육태도는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여러 정의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많은 연구들이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의 관

계에서 다양한 매개변인의 영향을 탐색하였다. Park(2020)은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태도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과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Oh et al.(2017)은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Ha(2020)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합리적 신념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Kim et al.(2020)은 자아분화수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Hwang & Lee(2020)는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수용과 공감능력의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는데, Oh & Baik(2018)은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 조절곤란의 매개효과, Park et al.(2011)은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를 탐색하였다. Kim & Jin(2019)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Park & Jo(2021)는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완벽주의, 정서조절곤란, 분화수준,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가 탐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가 자기결정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부모는 중요한 요인이다(Shin, 2016). 자기결정성 이론은 내재적 동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행동이 자기결정에 이해서 이루어지는가에 주목한다(Kim, 2010, as cited in Shin, 2016).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며 자율적일 때 자기결정성 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기결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Kim, 2007).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과는 정적 상관을 거부적 양육태도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Jo & Hwang, 2012).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효능감 증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Shin, 2016).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수용적이며 애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신감이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요인이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지각될수록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가능성은 자신의 미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의미한다. Kim(2021)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가능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양육태도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또한, 부모양육태도는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으며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앞선 선행연구 중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에서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와 대

인관계에서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의 매개효과를 가정하고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부모양육태도는 대인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모양육태도가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 변인들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는 것이다.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 세 변인 각각의 매개효과가 아니라 세 개의 매개변인을 한 모형에 포함하는 병렬 삼중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대인관계,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 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에서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은 병렬 삼중매개효과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이 미치는 삼중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NYPI(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에서 주관한 2017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자료(중학교)를 활용하였다. 2017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중학교 3학년 학생(중3) 960명을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1>에 분석에 포함된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빈도(n)	퍼센트(%)
성별	남학생	386	40.2
	여학생	574	59.8
지역	특별/광역시	409	42.6
	중소도시	464	48.3
	읍지역	87	9.1
	면지역	960	100.0
합계		960	100.0

###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2017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자료 학생 응답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대인관계는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의 3개의 구인으로 구성되었다. 관계형성은 자기개방성(3문항), 친화

성(3문항), 의사소통(3문항), 공감 및 배려(3문항)를 하위요소로 총 12문항으로 측정되었고, Cronbach  $\alpha$  는 .88이었다. 리더십은 의사결정(3문항), 집단활동 관리(3문항), 추진력(3문항)을 하위요소로 총 9문항으로 측정되었고, Cronbach  $\alpha$  는 .90이었다. 협동은 집단촉진(3문항), 팔로워십(2문항), 갈등문제해결(3문항)을 하위요소로 총 8문항으로 측정되었고, Cronbach  $\alpha$  는 .88이었다. 자기가능성(4문항), 부모양육태도(4문항)의 Cronbach  $\alpha$  는 .80, .70이었다. 자기결정성과 자기효능감은 두 문항만으로 측정되어 신뢰도 산출이 어려웠다. 모든 문항은 4 단계 Likert 척도로 수치가 높을수록 변인의 정도가 긍정적으로 높았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ronbach  $\alpha$  계수, 기술통계, Pearson 적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의 병렬 삼중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ayes(2018)가 제안한 SPSS PROCESS 모델 4번을 이용하였다. 각 모델의 통계적 유의성은 95% 신뢰도 구간에서 붓스트랩(bootstrapping)을 통하여 파악하였고, 이때 검증 샘플수(Bootstrap samples)는 5,000개로 지정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해석

### 1. 기술통계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 부모양육태도, 기술통계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모든 변인의 최소점은 1, 최대점은 4였다. 대인관계역량 세 가지 하위변인 중 리더십(2.88)이 관계형성(3.11), 협동(3.07)에 비해 다소 낮았다. 자기가능성(3.04)은 자기결정성(2.79), 자기효능감(2.88), 부모양육태도(2.98)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2>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N	M	SD	왜도	첨도
관계형성	960	3.11	.48	.05	.00
리더십	960	2.88	.53	-.01	.64
협동	960	3.07	.50	-.13	.70

자기결정성	960	2.79	.58	.20	-.16
자기효능감	960	2.88	.70	-.33	-.25
자기가능성	960	3.04	.63	-.24	-.42
부모양육태도	960	2.98	.61	-.37	-.04

## 2. 상관관계

변인 간 상관관계가 <표 3>에 나타나 있다. 변인 간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과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 양육태도는 관계형성(.193), 리더십(.154), 협동(.184)과 관계보다는 자기결정성(.269), 자기효능감(.300), 자기가능성(.314)과 관계가 더 높았다.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 변인 중 자기효능감이 관계형성(.376), 리더십(.462), 협동(.408)과 가장 관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연구 변인 간 상관분석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
리더십	.665**					
협동	.718**	.779**				
자기결정성	.319**	.355**	.318**			
자기효능감	.376**	.462**	.408**	.489**		
자기가능성	.337**	.373**	.381**	.432**	.601**	
부모양육태도	.193**	.154**	.184**	.269**	.300**	.314**

\*\* p<.01

## 3.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역량 관계: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의 병렬 삼중매개효과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이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관계를 병렬 삼중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Hayes(2018)의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4>~<표 12>, [그림 1]~[그림 3]과 같다.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 세 변인은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역량 관계를 완전 삼중매개하였다.

관계형성의 삼중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매개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경우 부모양육태도는 관계형성( $\beta=.15, p<.01$ )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세 변인을 투입했을 경우 부모양육태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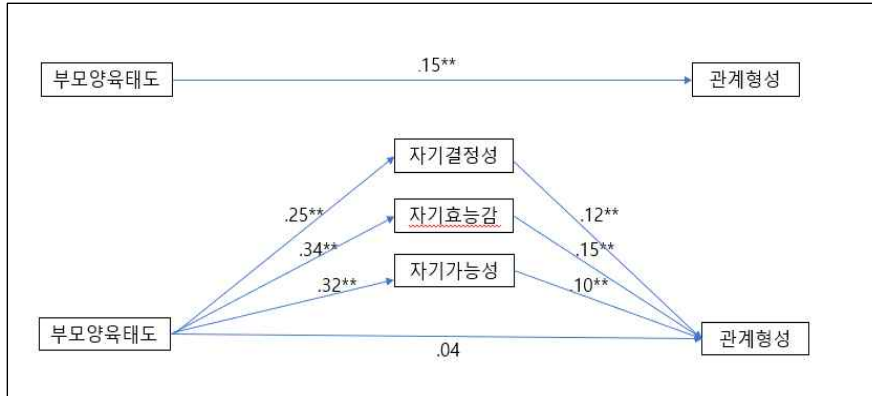


관계형성( $\beta=.04, p>.05$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양육태도는 자기결정성( $\beta=.25, p<.01$ ), 자기효능감( $\beta=.34, p<.01$ ), 자기가능성( $\beta=.32, p<.01$ )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자기결정성( $\beta=.12, p<.01$ ), 자기효능감( $\beta=.15, p<.01$ ), 자기가능성( $\beta=.10, p<.01$ )은 관계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이 부모양육태도와 관계형성 사이에서 이들의 관계를 완전 삼중매개하는 것을 보여준다(〈표 4〉, [그림 1] 참조).

또한, 부모양육태도의 관계형성에 대한 총 효과는  $.152(p<.01)$ 이었으나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되면서 부모양육태도가 관계형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38(p>.05)$ 로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은 부모양육태도의 관계형성 관계를 완전 삼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총 간접효과=.114).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검증 결과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의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의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표 6〉) 세 변인 간 효과크기에 차이는 없었다.

〈표 4〉 부모양육태도와 관계형성: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의 병렬 삼중매개효과

변수	$\beta$	SE	t	p	LLCI	ULCI
종속변인: 관계형성						
상수	2.65	.08	34.89	.000	2.50	2.80
부모양육태도	.15	.03	6.08	.000	.10	.20
종속변인: 자기결정성						
상수	2.04	.07	22.78	.000	1.86	2.21
부모양육태도	.25	.03	8.64	.000	.20	.31
종속변인: 자기효능감						
상수	1.87	.11	17.51	.000	1.66	2.08
부모양육태도	.34	.04	9.75	.000	.27	.41
종속변인: 자기가능성						
상수	2.09	.10	21.96	.000	1.90	2.27
부모양육태도	.32	.03	10.23	.000	.26	.38
종속변인: 관계형성						
상수	1.92	.09	20.57	.000	1.74	2.10
부모양육태도	.04	.02	1.56	.120	-.01	.09
자기결정성	.12	.03	4.23	.000	.07	.18
자기효능감	.15	.03	5.39	.000	.09	.20
자기가능성	.10	.03	3.51	.000	.05	.16



[그림 1] 부모양육태도와 관계형성 관계에서 각 경로별 계수

<표 5> 부모양육태도와 관계형성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의 간접효과 검증 \*BootLLCI, BootULCI

구분	효과	SE (BootSE)*	t	p	LLCI (BootLLCI)*	ULCI (BootULCI)*
매개변인: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						
총효과	.152	.03	6.08	.000	.103	.201
직접효과	.038	.01	1.56	.120	-.010	.087
총간접효과	.114	.01	-	-	.087	.141
간접효과(자기결정성)	.031	.01	-	-	.014	.050
간접효과(자기효능감)	.050	.01	-	-	.027	.075
간접효과(자기가능성)	.033	.01	-	-	.012	.054

<표 6> 부모양육태도와 관계형성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의 효과크기 비교

구분	효과	BootSE	BootLLCI	BootULCI
총 간접효과	.114	.01	.086	.141
자기결정성 - 자기효능감	-.019	.02	-.054	.015
자기결정성 - 자기가능성	-.002	.02	-.030	.029
자기효능감 - 자기가능성	.017	.02	-.019	.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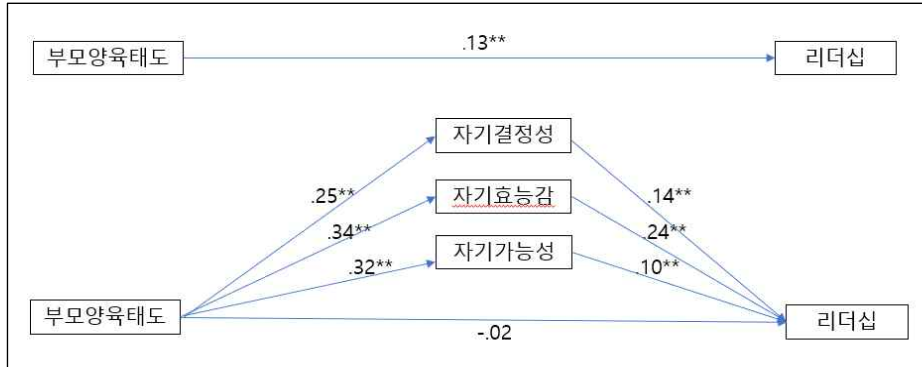
리더십의 삼중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매개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경우 부모양육태도는 리더십( $\beta=.13, p<.01$ )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세 변수를 투입했을 경우 부모양육태도는 리더십( $\beta=-.02, p>.05$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양육태도는 자기결정성( $\beta=.25, p<.01$ ), 자기효능감( $\beta=.34, p<.01$ ), 자기가능성( $\beta=.32, p<.01$ )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자기결정성( $\beta=.14, p<.01$ ), 자기효능감( $\beta=.24, p<.01$ ), 자기가능성( $\beta=.10, p<.01$ )은 리더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결정성, 자

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이 부모양육태도와 리더십 사이에서 이들의 관계를 완전 삼중매개하는 것을 보여준다(〈표 7〉, [그림 2] 참조).

또한, 부모양육태도의 리더십에 대한 총 효과는 .132( $p < .01$ )이었으나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되면서 부모양육태도가 관계형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19( $p > .05$ )로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은 부모양육태도의 관계형성 관계를 완전 삼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총 간접효과 = .152).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검증 결과는 〈표 8〉과 같다. 검증 결과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의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의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가 〈표 9〉에 나타나 있다.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크기가 자기결정성과 자기가능성 변인 효과크기보다 컸고, 자기결정성과 자기가능성 간 매개효과 효과크기에 차이는 없었다.

〈표 7〉 부모양육태도와 관계형성: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의 병렬 삼중매개효과

변수	$\beta$	SE	t	p	LLCI	ULCI
종속변인: 리더십						
상수	2.49	.08	29.70	.000	2.32	2.65
부모양육태도	.13	.03	4.81	.000	.08	.19
종속변인: 자기결정성						
상수	2.04	.09	22.78	.000	1.86	2.21
부모양육태도	.25	.03	8.64	.000	.20	.31
종속변인: 자기효능감						
상수	1.87	.11	17.51	.000	1.66	2.08
부모양육태도	.34	.04	9.75	.000	.27	.41
종속변인: 자기가능성						
상수	2.09	.10	21.96	.000	1.90	2.27
부모양육태도	.32	.03	10.23	.000	.26	.38
종속변인: 리더십						
상수	1.54	.10	15.68	.000	1.34	1.73
부모양육태도	-.02	.03	-.72	.469	-.07	.03
자기결정성	.14	.03	4.59	.000	.08	.20
자기효능감	.24	.03	8.60	.000	.19	.30
자기가능성	.10	.03	3.34	.000	.04	.16



[그림 2] 부모양육태도와 리더십 관계에서 각 경로별 계수

<표 8> 부모양육태도와 리더십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의 간접효과 검증  
\*BootLLCI, BootULCI

구분	효과	SE (BootSE)*	t	p	LLCI (BootLLCI)*	ULCI (BootULCI)*
매개변인: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						
총효과	.132	.03	4.80	.000	.078	.186
직접효과	-.019	.03	-.72	.469	-.070	.032
총간접효과	.151	.02	-	-	.118	.188
간접효과(자기결정성)	.035	.01	-	-	.016	.057
간접효과(자기효능감)	.083	.01	-	-	.056	.114
간접효과(자기가능성)	.033	.01	-	-	.012	.056

<표 9> 부모양육태도와 리더십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의 효과크기 비교

구분	효과 차이	BootSE	BootLLCI	BootULCI
총 간접효과	.151	.02	.118	.188
자기결정성 - 자기효능감	-.048	.02	-.088	-.010
자기결정성 - 자기가능성	.003	.02	-.028	.034
자기효능감 - 자기가능성	.050	.02	.014	.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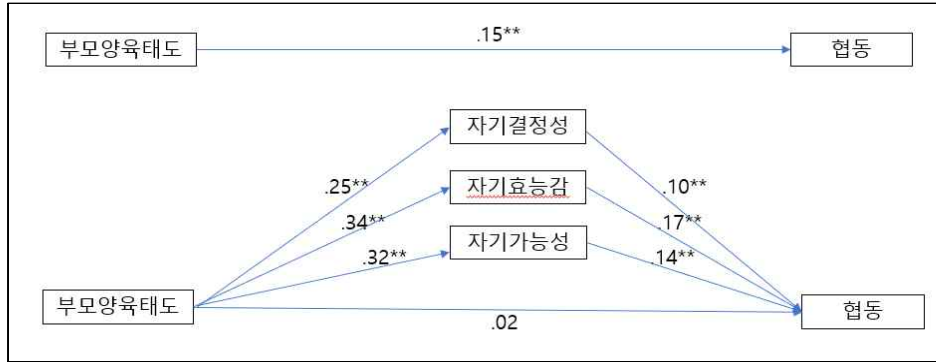
협동의 삼중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매개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경우 부모양육태도는 협동 ( $\beta=.15, p<.01$ )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세 변인을 투입했을 경우 부모양육태도는 협동 ( $\beta=.02, p>.05$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양육태도는 자기결정성 ( $\beta=.25, p<.01$ ), 자기효능감 ( $\beta=.34, p<.01$ ), 자기가능성 ( $\beta=.32, p<.01$ )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자기결정성 ( $\beta=.10, p<.01$ ), 자기효능감 ( $\beta=.17, p<.01$ ), 자기가능성 ( $\beta=.14, p<.01$ )은 협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형성, 리더십

과 마찬가지로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이 부모양육태도와 협동 사이에서 이들의 관계를 완전 삼중매개하는 것을 보여준다(〈표 10〉, [그림 3] 참조).

또한, 부모양육태도의 협동에 대한 총 효과는 .149( $p < .01$ )이었으나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되면서 부모양육태도가 협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21( $p > .05$ )로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은 부모양육태도의 협동 관계를 완전 삼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총 간접효과, .129).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검증 결과는 〈표 11〉과 같다. 검증 결과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의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의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표 12〉) 세 변인 간 효과크기에 차이는 없었다.

〈표 10〉 부모양육태도와 협동: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의 병렬 삼중매개효과

변수	$\beta$	SE	t	p	LLCI	ULCI
종속변인: 협동						
상수	2.62	.08	33.49	.000	2.47	2.78
부모양육태도	.15	.03	5.80	.000	.10	.20
종속변인: 자기결정성						
상수	2.04	.09	22.78	.000	1.86	2.21
부모양육태도	.25	.03	8.64	.000	.20	.31
종속변인: 자기효능감						
상수	1.87	.11	17.51	.000	1.66	2.08
부모양육태도	.34	.04	9.75	.000	.27	.41
종속변인: 자기가능성						
상수	2.09	.10	21.96	.000	1.90	2.27
부모양육태도	.32	.03	10.23	.000	.26	.38
종속변인: 리더십						
상수	1.80	.10	19.12	.000	1.34	1.73
부모양육태도	.02	.03	.82	.413	-.03	.07
자기결정성	.10	.03	3.59	.000	.04	.16
자기효능감	.17	.03	6.10	.000	.11	.22
자기가능성	.14	.03	4.87	.000	.09	.20



[그림 3] 부모양육태도와 협동 관계에서 각 경로별 계수

<표 11> 부모양육태도와 협동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의 간접효과 검증  
\*BootLLCI, BootULCI

구분	효과	SE (BootSE)*	t	p	LLCI (BootLLCI)*	ULCI (BootULCI)*
매개변인: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						
총효과	.149	.03	5.80	.000	.099	.200
직접효과	.021	.03	.82	.413	-.029	.070
총간접효과	.129	.02	-	-	.010	.160
간접효과(자기결정성)	.026	.01	-	-	.007	.046
간접효과(자기효능감)	.057	.01	-	-	.033	.083
간접효과(자기가능성)	.046	.01	-	-	.025	.071

<표 12> 부모양육태도와 협동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의 효과크기 비교

구분	효과 차이	BootSE	BootLLCI	BootULCI
총 간접효과	.151	.02	.118	.188
자기결정성 - 자기효능감	-.031	.02	-.068	.005
자기결정성 - 자기가능성	-.020	.02	-.052	.010
자기효능감 - 자기가능성	.011	.02	-.026	.048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NYPI(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에서 주관한 2017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자료(중학교 3학년 학생)를 활용하여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이 미치는 병렬 삼중매개효과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대인관계역량 3가지 하위변인의 평균은 리더십이 2.88, 관계형성이 3.11, 협동이 3.07로 4단계 척도에서 ‘그렇다’ 수준을 보이고 있다. 리더십이 관계형성이나 협동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2018년도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Jang et al., 2018). 2018년도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조사 결과에서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모두에서 리더십의 평균은 관계형성과 협동에 비해 낮았다(예, 2018년도 중학교 대인관계역량 결과, 관계형성: 3.11, 리더십: 2.90, 협동: 3.09). 리더십은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할 일을 수행하며 책임회피와 전가를 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완수하는 능력으로 청소년이 함양해야 할 중요한 역량이다. 학교와 교육 관련 기관은 대인관계역량 하위변인 중 리더십 역량이 다소 낮은 원인을 파악하고 리더십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부모양육태도는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과 관계보다는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과 관계가 더 높았다.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 변인 중 자기효능감이 관계형성(.376), 리더십(.462), 협동(.408)과 가장 관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작용하는 구인이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해 나가는 것에 대한 효능감, 사회적 상호작용 시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이다(Ryu, 2020). Ryu(2020)에서 대인관계와 사회적 자기효능감 상관관계는 .67로 매우 높았다. 이 계수는 본 연구보다 높은 수치로 대인관계에 대한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중요도를 보여준다.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뿐 아니라 더 나아가 대인관계와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영향력을 탐색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셋째,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은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관계를 병렬 삼중매개하였다.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모두에서 위 세 변인은 부모양육태도를 완전 삼중매개하였다. 즉, 부모양육태도와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 매개 변인이 동시에 투입될 경우 부모양육태도가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은 현저히 감소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역량은 부모양육태도 보다는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관계에서 매개변인 효과를 탐색하는 경우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한 개의 매개변인을 설정하고 효과를 탐색하였다. 이 경우 부모양육태도는 대인관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매개효과는 부분 매개효과가 일반적이었다(Kim & Jin, 2019; Oh & Baik, 2018; Park, 2020).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한 개인이 다양한 정의적 특성을 지닌 존재이고 이러한 특성들이 동시에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부모양육태도의 대인관계역량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은 현저히 작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부모양육태도는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269), 자기효능감(.300), 자기가능성(.314) 상관관계도 유의하여, 부모양육태도는 매개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보여준 Shin(2016), Kim(2021) 등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은 다른 변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자기결정성은 기본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발달한다(Wei, 2021). 기본 심리적 욕구는 관계성, 자율성, 유능성으로 구성되고, 이 욕구들이 지지를 받고 충족될 경우 자기결정성은 촉진 및 유발될 수 있다(Wei, 2021). 자기통제력은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eon, 2019).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과 학교, 가정, 사회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역량도, 사회적 측면에서 수행에 대한 기대감, 자기효능감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Seon, 2019). 자기가능성도 자아개념 등과 관련이 높다(Kim, 2021). 따라서, 부모와 관계 외에도 친구, 교사 등 타인과 관계에서 긍정적 지지를 경험하고, 가정과 학교 외 교육환경에서 자율성과 유능성 욕구가 충족되고, 자기통제력, 자아개념 등이 향상된다면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향상은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는 대인관계역량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매개변인(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 간접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양육태도의 대인관계에 대한 매개변인들의 부분 매개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다. 추후 매개변인들이 연구모형에 이중, 삼중, 다중으로 동시에 투입되어 본 연구 결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부모양육태도의 대인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2017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자료의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은 두 문항으로 측정된 변인으로 신뢰도 측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기관의 설문조사 문항에 주의를 기해야 하며 추후 이를 고려하여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Ahn, J. Y. (2017). *The relations between social isolation experience in adolescence and interpersonal problem of college students in early adulthood: The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experiential avoidance* [Unpublished Master' s Thesis]. Seoul Women' s University. ☞ 국문: 안지영(2017). **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경험과 초기성인기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정서표현양가성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Arrindell, W. A., & Engebretsen, A. A. (2000). Convergent validity of the short-EMBU and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Dutch finding.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7(4), 262-266. [https://doi.org/10.1002/1099-0879\(200010\)7:4<262::AID-CPP257>3.0.CO;2-9](https://doi.org/10.1002/1099-0879(200010)7:4<262::AID-CPP257>3.0.CO;2-9)
- Bae, J. W., & Cheon, S. M. (2004).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enhance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Mind Science*, 7(1), 125-137. ☞ 국문: 배정우, 천성문(2004). **고등학생을 위한 대인관계능력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동서정신과학*, 7(1), 125-137.
- Choi, S. R. (2010). *The effect of bibliotherapy program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Unpublished Master' s Thesis]. Yeungnam University. ☞ 국문: 최성렬(2010). **독서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Ha, D. Y. (2020).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emotion regula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belief and resilience* [Unpublished Master' s Thesis]. Donga University. ☞ 국문: 하다영 (202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 및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합리적 신념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 The Guilford Press.
- Huh, M. Y. (2004).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2(2), 170-189. ☞ 국문: 허효연(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Hwang, Y. E., & Lee, J. M. (2020).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university

- students on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 Dual mediating effects of self-acceptance and empathy abilit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5(2), 3-22. <https://doi.org/10.21321/jfr.25.2.3> ㉮ 국문: 황예은, 이지민(2020).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과 공감능력의 이중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2), 3-22.
- Jang, G. Y., Seong, E. M., Mo, S. H., Jin, S. H., Choi, H. S., Kim, G. H., & Heo, H. J. (2018). *A study on measurement of Korean youth competency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V: IEA ICCS 2016*.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8-R15-1). [https://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0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cont\\_idx=644&seltab\\_idx=0&edomweivgp=R](https://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0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cont_idx=644&seltab_idx=0&edomweivgp=R) ㉮ 국문: 장근영, 성은모, 모상현,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허효주(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V: IEA ICCS 2016 결과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8-R15-1).
- Jo, H. I. (2011).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internet use motives on internet addiction: Self-control as a mediator.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4), 269-287. ㉮ 국문: 조한익(2011).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와 인터넷 이용 동기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4), 269-287.
- Jo, H. I., & Hwang, J. E.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self-determined motivation for learning of middle school-aged childre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4), 27-52. ㉮ 국문: 조한익, 황정은(201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간의 관계: 정서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4), 27-52.
- Kim, E. J. (2007).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on college freshman's lif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1(3), 539-555. ㉮ 국문: 김은주(2007). 부모 자녀관계와 자기결정성 요인들이 대학신입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1(3), 539-555.
- Kim, H. J. (2010). *A study of factors explaining adolescents' well-being by developi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국문: 김현주(2010). **부모 자녀 의사소통 및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 개발을 통한 청소년 안녕감 설명 변인 연구**. 박사 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Kim, J. Y., & Jin, M. K. (2019).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interpersonal problems by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6(4), 355-378. <https://doi.org/10.21509/KJYS.2019.04.26.4.355> ㉮ 국문: 김

- 지윤, 진미경(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4), 355-378.
- Kim, M. Y., Kim, H. S., & Kim, J. H. (2020). The mediated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level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rearing attitudes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8(4), 99-116. <https://doi.org/10.18230/tjye.2020.28.4.99> ☞ 국문: 김명연, 김현숙, 김장희(202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수준의 매개효과. *열린교육연구*, 28(4), 99-116.
- Kim, S. Y. (2019).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s and peer relationships on early adolescents' self-concept.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9(2), 39-56. <https://doi.org/10.34226/gcl.2019.9.2.39> ☞ 국문: 김소영(2019). 초기 청소년의 부모관계와 또래관계가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9(2), 39-56.
- Kim, S. Y. (2021). The effe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of adolescents.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1(3), 31-51. <https://doi.org/10.34226/gcl.2021.11.3.31> ☞ 국문: 김소영(2021). 청소년 개인특성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1(3), 31-51.
- Lee, E. T., & Lee, E. K. (2012).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on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ce: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a guilty.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1), 55-70. <https://doi.org/10.35151/kyci.2012.20.1.004> ☞ 국문: 이윤희, 이은경(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죄책감을 매개변인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0(1), 55-70.
- Lee, H. D. (1998). *The practice of interpersonal training* (2nd eds.). Jungangjeogseong Inc. ☞ 국문: 이형득(1998). *인간관계 훈련의 실제* (2판). 중앙적성출판사.
- Lee, J. M. (2010).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family strength, self-differenti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3), 1271-1287. <https://doi.org/10.15703/kjc.11.3.201009.1271> ☞ 국문: 이지민(2010).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대인관계와 대학생 우울 간의 관계 구조. *상담학연구*, 11(3), 1271-1287.
- Lee, Y. Y. (2014). *A study on how characteristic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ffects human relation ability, sociality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parenting sty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 국문: 이영애(2014). *초등학생의 성격특성이 대인관계능력, 사회성 및 내적통제소재에 미*

- 치는 영향: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 Lee, W. Y. (1984). The relationship of mother's educational view and child-rearing attitudes to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5, 101-140. ☞ 국문: 이원영(1984).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 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유아교육연구*, 5, 101-140.
- Moon, M. S. (2007). *The effect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 adolescents o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cheon University. ☞ 국문: 문미숙(200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및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 Oh, B. S., Won, Y. S., & Ham, S. R. (2017).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6), 106-115. <https://doi.org/10.5392/JKCA.2017.17.06.106> ☞ 국문: 오복숙, 원유순, 함승례(2017).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관계 적용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6), 106-115.
- Oh, I. G., & Baik, J. S. (2018).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adolescents. *Youth Facilities & Environment*, 16(1), 79-88. ☞ 국문: 오인경, 백지숙(201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6(1), 79-88.
- Park, E. Y. (2018).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child affective bonding (Bu-Ja-Yu-Chin-Sung-Ju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al overprotection and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 국문: 박은엽(2018).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과보호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부자유친성정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Park, H. J. (2020).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and empathy between parent rearing attitude and interpersonal ability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 국문: 박현주(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과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Park, H. J., Cheon, S. M., & Ju, D. B. (2011). The effect of parentification-proneness and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middle school students: Mediated by shame-pronenes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0(2),

- 35-49. ㉮ 국문: 박현정, 천성문, 주동범(2011). 중학생의 부모화 경향성과 부모양육태도 지각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직업교육연구**, 30(2), 35-49.
- Park, J. H. (2012). *The development of a class-based group counseling program to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for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국문: 박지환(2012). **고등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학급단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Park, J. Y., & Jo, H. I. (2021). Th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and interpersonal problem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8(10), 577-606. <https://doi.org/10.21509/KJYS.2021.10.28.10.577> ㉮ 국문: 박재윤, 조한익(2021).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10), 577-606.
- Park, Y. S., & Lim, A. N. (2017).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juvenile delinquency: Focused on mediated effect of depress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49), 59-85. <https://doi.org/10.35422/cwsk.2017.49.3> ㉮ 국문: 박영숙, 임안나(2017).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우울을 매개효과로. **교정복지연구**, (49), 59-85.
- Ryu, M. S. (2020). The effects of the need for approval, nunchi, social self-efficacy on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3), 1243-1272.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3.1243> ㉮ 국문: 류미숙(2020). 타인에 의한 타당화 욕구, 눈치,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3), 1243-1272.
- Schutz, W. C. (1958). *FIRO: A three-dimensional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 Rinehart & Company, Inc.
- Seo, S. M. (2020).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ocial anxiety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국문: 서수민(2020).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사회불안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Seon, K. S. (2019).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in adolescents' life stress, self competence, soci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eongju University. ㉮ 국문: 선관수(2019).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 자아역량, 사회적 역량,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분석**.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 Shin, J. M. (2016). *The interrelationship among parental attitude, self-efficacy, and self-determination as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 s Thesis]. Yeungnam University. ㉮ 국문: 신지민(201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W W Norton & Co.
- Wei, H. (2021). *Effects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on teenagers' psychological needs, motivation and support on relatedness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kyong University. ㉮ 국문: 위하영(2021). **체육교사의 관계성지지가 청소년의 욕구만족, 자기 결정 동기와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 Yoo, H. J. (2021). *The mediating effects on SNS addiction tendency and emotional control difficulties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non-suicidal self-injury* [Unpublished Master' s Thesis]. Pukyong University. ㉮ 국문: 유혜정(2021).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 SNS 중독경향성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